‘조선왕조실록’ 96책 추가 확인…국보 된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어람용 봉모당본 등 46년만에 파악…국왕도 맘대로 열람 못해

정족산사고본 성종실록

적상산사고본 광해군일기

봉모당본 정종실록

적상산사고본 인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효종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 96책이 추가로 국보가 된다. 또한 지난 1973년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등 일부가 국보로 지정된 이래 46년 만에 전체 2219책의 규모가 파악됐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조사를 통해 2076책(제151-1호부터 제151-4호)과 2007년 일본동경대가 서울대 규장각에 반환한 오대산사고본 실록 47책(151-3호로 추가 지정)까지 모두 2123책이 발견됐다. 이번에 96책이 파악돼 조선왕조실록 2219책의 방대한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문화재청은 전북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낱장으로 흩어진 자료) 78 책 등 모두 96책을 추가로 파악해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선 태조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식으로 정리한 조선왕조실록은 방대한 양만큼이나 사료적 가치도 높다. 당대의 정치, 사회, 외교, 경제, 군사, 법률, 문화 등을 기록한 유산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 현황을 재검토했고 2018년에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일부 누락, 또는 국보 지정 이후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책들이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6·25때 북으로 반출됐다고 알려진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 보관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 ‘무주적상산사고 소장 조선총독부 기증본’ 등의 인장이 찍혀 있어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는 한양, 전주, 충주, 성주에 있었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전주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불에 탔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는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4부를 간행해 한양 춘추관·태백산·묘향산·오대산에 각각 보관했다. 이후 전주사고본은 강화도에 두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병자호란 발발로 강화사고가 피해를 보게 됐고 춘추관사고본 중 일부와 적상산사고본을 등사한 책을 강화사고본에 편입했다. 그 후 강화사고 실록이 정족산사고로 이관됐고 묘향산 실록은 무주 적상산사고로 옮겨 태백산 오대산 사고와 함께 4대 사고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번에 파악된 실록 가운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봉모당본’은 푸른 색 비단의 어람용(御覽用) 실록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다. 조선 후기 어람용 실록을 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재난에 대비해 여러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준다”며 “선조들의 기록관리 정신을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으로 우리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 매우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버스, 관광이 되다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름하여 ‘속마음 버스’. 평일 두 번, 토요일에는 세 차례 서울 여의도역을 떠나 자유로를 거쳐 1시간 30여분 만에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탑승객들은 커튼으로 가려진 오붓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그동안 묵혀 뒀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서울시와 카카오, (사)공감인이 운영하는 이 버스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순번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그런데 이 버스에는 규칙이 하나 있다. 중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 봐선 안된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등 오롯이 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대구에는 지역 출신 가수 고 김광석을 테마로 한 ‘더플레이버스’가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다. ‘안녕하실 테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빨간색 바탕에 김광석의 캐리커처와 인사말이 새겨진 버스에 오르면 인상좋은 DJ가 김광석의 노래와 음악이야기를 들려준다. 마지막 코스인 김광석 거리에 다다르면 유리창을 통해 뮤지션들의 버스킹을 즐길 수 있는 ‘움직이는 스테이지’도 펼쳐진다.

일명 ‘달리는 버스극장’으로 불리는 시티투어의 원조는 뉴욕의 명물, ‘더 라이드’(The Ride)다. 주로 맨하튼 일대를 1시간 40분~2시간 30분 정도 운행하는 이 버스는 여느 관광버스와는 차이가 있다. 보통 오픈 천장인 2층 시티투어 버스와 달리 천장과 버스 옆면을 통 유리창으로 특수 제작했다. 또한 좌석을 운전석 쪽이 아닌 창밖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배치해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준다.

‘더 라이드’의 백미는 버스 바깥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달리던 버스가 교통신호에 걸려 멈추면 거리를 걷던 남녀가 갑자기 댄서로 변신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버스 안 역시 경쾌한 음악과 현란한 조명이 어우러진 ‘물 좋은’ 클럽으로 바뀐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2~3분간 힙합, 재즈 공연이 쉼없이 이어진다. 사전에 거리에 ‘심어 놓은’ 게릴라 무용수들이 버스 관광객들을 위해 즉석무대를 꾸미는 것이다.

이처럼 잘 만든 시티투어는 도시의 관광상품으로 경쟁력이 높다. 근래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티투어로 지역의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시티투어는 다시 버스에 오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콘텐츠다.

광주시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다음달 부터 올 시즌 시티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레퍼토리는 단순한 버스관광에 불과할 뿐이다. 관광남도의 미래를 위해선 다양한 문화자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시티투어전략이 필요하다. 사실 맨하튼 도심을 오픈 스테이지로 바꾼 ‘더 라이드’는 뉴욕시의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고질적인 도심의 교통체증을 공연과 버스에 접목시켜 뉴욕의 브랜드로 탄생시킨 것이다.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남도산(産) ‘더 라이드’의 출발을 기대해본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31일 광주극장서 ‘내가 사는 세상’ 감독·배우와 대화

영화 ‘내가 사는 세상’을 연출한 최창환 〈사진〉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오는 31일 오후 2시 40분 광주극장을 찾는다.

영화는 꿈은 DJ지만 현실은 일과 사랑 모두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민규(곽민규)와 꿈은 아티스트지만 현실은 미술학원 보조강사로 이리 저리 치이기 바쁜 시은(김시은)이 사는 세상을 소소하게 담아냈다.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선보여온 최창환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전태일 47주기 대구시민 노동문화제·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민예총 대구지회가 제작에 참여했다. 19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초청돼 “부당한 노동환경에 지쳐가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일을 견뎌가는 청춘의 민낯을 담담하게 포착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12세 관람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포토 바이 시니어’ 강좌 개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이 ‘포토 바이 시니어’ 강좌를 개설했다.

‘포토 바이 시니어’는 인생의 선배인 시니어들이 박물관의 문화재와 정원, 답사지의 여러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강좌다.

이번 강좌는 카메라를 활용한 문화유산 촬영에 초점을 뒀으며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박물관 전시관과 교육관 등에서 펼쳐진다.

‘카메라를 배워요’, ‘빛 그림’, ‘렌즈와 멋진 구도’, ‘세상의 색들과 빛’, ‘햇빛은 화가’, ‘박물관 나의 모습’, ‘야외 촬영’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60세 이상 25명 선착순 모집중이며 재료비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신청방법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 문의 062-570-705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 4월3일까지 공모

독서토론회·낭독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사업을 오는 4월 3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동네책방을 문화사랑방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교류의 장으로 재창출하는 사업이다. 독서토론회, 낭독회 등 도서와 관련된 콘텐츠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도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서점이 문화공간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03-26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백세 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웃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 흥 나 루 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 강 버 티 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외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 주 공 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국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죽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청 학 철 학 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 · 가방 · 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그 집 고 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기 담 철 학 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 · 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 · 단체 환영
☎062)432-1324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루 팡 닭 강 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 · 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